

Toshiba, 리튬이온전지 공장 건설

Toshiba는 대표적인 충전지인 리튬이온전지 양산 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300억엔(약 4천500억원)을 투자해 Nigata의 Kashiwazaki에서 산업기기와 전기자동차용 전지를 생산할 방침이다.

Toshiba는 2008년 대폭적인 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기의 환경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전지의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신규 공장은 2009년에 착공해 2010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독자 개발한 신형 리튬이온전지 <SCiB>를 2015년에는 월평균 1000만개 생산함으로써 2000억엔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형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단시간에 충전이 가능하고 발화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어 산업 기기와 전기자동차용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24>